

내일은 해가 뜬다

고재현 창작동화 | 최경식 그림 | 별숲 펴냄



- 《내일은 해가 뜬다》는 1970년대에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책입니다. 2024년에는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이제는 사라진 말들이 책 속에서 많이 등장하지요. 《내일은 해가 뜬다》를 읽으며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뜻이나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단어	단어의 뜻이나 관련 내용	지금도 이 단어를 사용하나요?
(예시) 새마을운동	1970년대 정부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낙후된 농촌 환경의 개선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당시의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내일은 해가 뜬다

고재현 창작동화 | 최경식 그림 | 별숲 펴냄



- 《내일은 해가 뜬다》의 주인공 은주와 금주 언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은 요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책을 보며 은주, 금주, 아빠가 일하는 모습이 요즘 일하는 모습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여 봅시다. (요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은 부모님이나 친척, 주변 어른의 모습을 떠올리며 적어 봅시다.)

은주, 금주, 아빠가 일하는 모습	요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p>예시 :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일할 수 있다. (본문 84쪽)</p>	<p>예시 : 어른들이 일을 한다. 예시 :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p>

- 은주, 금주, 아빠의 모습과 요즘 일하는 사람들의 달라진 점을 비교하며 떠오른 생각을 써 봅시다.



내일은 해가 뜬다

고재현 창작동화 | 최경식 그림 | 별숲 펴냄



- 《내일은 해가 뜬다》 주인공들의 행동과 말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찾아 써 봅시다.

등장인물	인물의 말과 행동 중 인상적이었던 부분	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p>은주</p>	<p>은주가 처음 블라우스 공장에 갔을 때 화를 내는 미성사에게 말한 부분. “저 금방 배워요.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말해 주세요.” (본문 89쪽)</p>	<p>난생처음 해 보는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혼이 나니 억울하고 화났을 텐데도, 오히려 자신이 잘 배울 테니 다시 알려 달라고 말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p>
 <p>geomju</p>		
 <p>아버지</p>		
		
		